

이시가네 마을 터

센노산 주변의 은 광산은 16 세기 중반보다 좀 더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센노산 정상 부근에는 비교적 평탄하고 낮은 폴로 덮힌 넓은 계단식 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와미 은광이 가장 번영했던 17 세기 초기에 광산 노동자들이 대규모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이시가네라는 장소입니다. 이시가네 마을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채굴 거점이었던 혼다니로 향하는 폭 2m 정도의 내리막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길 양쪽에는 여러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현재 이 길은 복원되었습니다. 제련용 갱도 유구와 부스러진 광석,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다양한 물품들을 통해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각자의 집에서 근처 갱도에서 채굴된 은 광석을 선광하고 용해해 제련하며 생활과 노동 모두를 이 지역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집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벽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신선한 물은 근처의 우물에서 길러왔습니다.

이시가네 마을 터 중심지 부근에 자리한 좁은 갱도 앞에는 광산 노동자의 집이자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던 돌의 기초가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1990 년대에 이루어진 마을 터 발굴에서는 이와미 은광의 근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취법(灰吹法)을 이용한 은 제련에 사용되었던 16 세기 철제 냄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고품질의 은을 생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였던 이 기술은 1533 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역사 문서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취법과 이와미 은광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이시가네에서 발견된 이 철제 냄비가 최초였습니다.

이시가네에서 이루어진 발굴은 이와미 은광의 광산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일은 종종 가족 단위로, 그리고 때로는 각 가족들이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터에서 발견된 인상적인 발굴 중 하나는 여성의 머리카락 묶음을 엮어 만든 부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아내가 채굴장에서의 안전을 기도하며 남편에게 건넨 행운의 부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